

대학의 세계화, 어떻게 풀 것인가

요즘 세계화 석자가 우리 시대의 화두로 던져졌다. 사회의 각 분야마다 나름대로 이 화두를 풀어내기에 여념이 없다. 대학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돌이켜 보면 해방후 반세기 동안 대학의 실체는 우골탑이란 자조 속에 응축된다. 너나없이 도토리 키재기 식의 세불리기에 온 힘을 쏟는 양적 팽창의 과도기를 겪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각 대학들은 고유한 특성을 찾아내기 힘든 닳은 꼴들이 되었다. 국·공립과 사립의 설립주체를 가릴 것 없이 같은 학과, 비슷한 교과과정을 공유한 난형난제의 개성없는 형상을 보여 주었다. 구태여 차이를 둔다면 덩치의 크고 작음이 있을 뿐이었다.

90년대의 문턱을 들어서면서 대학사회는 자신들의 모습을 세계화란 거울을 통해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몇몇 앞서가는 대학들은 세계 100개 우수 대학의 서열에 들어서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 한국의 명문대를 최고치로 삼던 우물안 개구리의 좁은 시각을 뒤늦게 벗어난 셈이다.

그러나 짧은 연륜을 지닌 대부분의 뒤처진 대학들은 그들의 위상을 어디에다 두어야 할지 난감할 것이다. 어려운 재정형편과 굳어진 사회적 인식의 벽을 뚫고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 길은 거의 찾기 어려운 일이다.

대학을 향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지고 대학 선택의 선별기준이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힘든 상황 속에서 어찌먼 자기존립의 기반마저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대학사회의 저변에 깔려 있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자구책을 꾀하기 위한 개혁의 몸부림을 시도해 보지만 거기에는 일정한 현실적 한계가 있다.

이제 살 길은 하나뿐이다. 그것은 차별화의 전략이다. 현 시점에서 자신을 냉철히 돌이켜 보고 남과 구별되는 특성화를 추구해야만 한다. 어떤 한 학부, 아니면 어느 한 학과라도 최고의 수준을



한양대 총장 김 종 량

유지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쓰임새 큰 인재를 길러내어 대학의 존재를 과시할 수밖에 없다.

실상 우리들 주변에는 남들과 구별되는 고유한 학풍과 독특한 교육방식을 고수하여 짧은 기간내에 뚜렷한 위상을 확립한 몇몇 대학들의 성공사례가 있다. 이들에게는 오히려 긴 역사와 비대한 규모가 짐이 될 뿐이다. 교육목표의 초점이 명료해질수록 여기에 쏟는 모든 노력이 확대 재생산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따져보면 대학의 세계화는 세계화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 대학사회는 새롭게 교육의 틀을 짜야만 한다. 양적 팽창으로 점철된 대학 성장의 기존관념을 과감히 부수고 질적인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우리 앞에 던져진 세계화란 화두는 결코 피할 수 없는 명제이다. 이를 풀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낡은 껍질을 벗어내는 아픔이 없이는 아무 것도 얻어낼 수가 없다. ▣

김종량/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 대학에서 석사, 컬럼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양대 교육공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는 한양대 총장으로 재직중이며, 사립대총장협의회 부회장, 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대학스포츠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교육공학』 등이 있고,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